

## 목차 & 두 줄 요약



### 빅데이터 ..... 31



#### 해외

##### ‘NVIDIA 대항마’ 스피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특화 칩 상용화 준비 ..... 31

이스라엘 스타트업 스피데이터는 NVIDIA와 차별화된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특화된 분석 처리 장치(APU)를 개발 중으로, 최근 유치된 투자를 바탕으로 본격 상용화에 나설 예정

##### 트럼프 행정부, 연방 정부의 데이터 통합을 위해 팔란티어와 협력 확대 ..... 32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및 처리 도구인 ‘Foundry’를 활용한 데이터 통합 및 민간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



#### 정책

##### 유전체 및 건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OPEN KoGES’ 활용 성과 발표 ..... 33

질병관리청은 OPEN KoGES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이 21만 명의 유전체와 건강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플랫폼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힘

##### 내 손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34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하며 개인의 금융정보 통합 조회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금융 소비자의 자산관리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업

##### [AI & Big Data Show 2025] AI 상용화의 핵심은 ‘데이터’ ..... 35

AI & Big Data Show 2025에서 데이터 활용 기술과 생성형 AI 도구를 접목한 기업용 업무자동화 및 데이터 관리기술이 핵심 트렌드로 주목받음

##### 교통약자를 위한 음식점 선별,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월체어’ ..... 36

지방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분석 도구를 행정에 활용하여 월체어를 끄는 교통약자들도 이용 가능한 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무장애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개인정보

##### 개인정보위,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 배포 ..... 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장소 CCTV 설치·운영 시 유의할 점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해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법적 의무 이행을 강조함

##### 디지털 보험사 보안 뚫렸다...美 레모네이드, 개인정보 유출 파문 ..... 38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 견적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최대 19만 명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됨



## ‘NVIDIA 대항마’ 스피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특화 칩 상용화 준비

- ‘스피데이터(Speedata)’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용 반도체 APU 기술로 주목받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으로, 최근 4,400만 달러(약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
  - 스피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과 AI 워크로드를 가속하도록 설계된 전용 분석 처리 장치(Analytics Processing Unit, APU)\*를 개발 중으로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예정
    - \* AI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연산장치로 기존 CPU나 GPU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도록 설계됨
  - 기존 GPU가 그래픽 처리용으로 개발된 후 AI와 데이터 처리에 활용되는 것과 달리, 스피데이터의 APU는 처음부터 빅데이터 분석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음
  -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주요 병목 현상인 ▲I/O 가속화 ▲컴퓨팅 가속화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 문제를 해결함

<‘스피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특화 칩 ‘카리스토(Callis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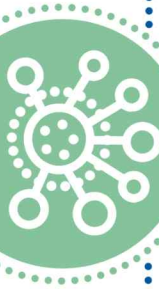
- 범용 GPU가 모든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시대에서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스피데이터는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전용 칩 개발로 차별화를 시도
  -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의 확산으로 빅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존의 범용 GPU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스피데이터 CEO 아디 겔반(Adi Gelvan)은 “수십 년간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는 다른 용도로 개발된 범용 실리콘에 주로 의존해왔다”라며 전용 칩의 필요성을 강조
  - 스피데이터는 기존에는 대규모 서버 클러스터가 필요했던 워크로드를 자사의 기술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스피데이터의 상용화 성공 여부가 빅데이터 전용 칩 시장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

출처 : TechBrow(2025.06.04.) 'NVIDIA 대항마' 스피데이터, 4,400만 달러 투자 유치... AI 데이터 분석 칩 시장 정조준



## 트럼프 행정부, 연방 정부의 데이터 통합을 위해 팔란티어와 협력 확대

-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데이터 통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재편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떠오른 기업은 바로 팔란티어(Palantir)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다양한 연방 기관에 팔란티어의 분석 플랫폼이 도입되며 정부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 통합 작업이 본격화
  - 대표적으로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HHS), 국세청(IRS), 사회보장청(SSA) 등이 그 대상이며, 이 중 일부 기관은 이미 팔란티어 기술을 이용해 대규모 데이터 구조를 재편성
- 팔란티어의 'Foundry'는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하며,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도구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정보 통합에 기여할 전망
  - 이 기술은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 미국 시민들의 의료 정보, 금융 기록, 이민 상태, 장애 여부, 심지어 계좌번호나 학자금 대출 잔액 등까지 결합해 정교한 개인별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함
  -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성부서는 팔란티어를 통해 방대한 양의 행정 데이터를 연결하고자 시도 중이며, 실제로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이민자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팔란티어와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세청은 납세자 데이터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
- 그러나 이러한 정보 통합이 실질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비판 세력에 대한 정치적 감시, 이민자 단속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강한 우려를 낳고 있음
  - 팔란티어 일부 직원 및 엔지니어들도 데이터 통합 기술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단일화된 플랫폼이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비판
  - 특히 정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행정 시스템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
- 미국에서는 이처럼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 빅데이터 플랫폼의 대규모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데이터 통합이 정부 정책의 중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
  - 그러나 이 같은 기술 통합은 투명한 통제 메커니즘과 윤리적 기준 없이는 정치적 오용 및 감시 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



출처 : Newsweek(2025.06.02.) Donald Trump's Reported Database Move Sparks Alarm: 'Dystopian'

The New York Times(2025.05.30.)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expanded Palantir's work with the government, spreading the company's technology-which could easily merge data on Americans-throughout agencies.



## 유전체 및 건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OPEN KoGES' 활용 성과 발표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월 12일(목), 디지털 서비스 기반 클라우드 'OPEN KoGES'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교류회를 개최
  - 'OPEN KoGES'는 약 21만 명의 한국인 유전체와 건강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플랫폼
-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 유전적 요인 예측과 질병기전 연구 ▲식이 및 생활습관 요인 연구 ▲AI 예측 모형 및 분석 모델 개발 등을 공유

<'OPEN KoGES' 및 성과교류회 활용 과정>



- 주요 연구성과로는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유방암, 고혈압, 당뇨병 등) 예측 연구,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한국인 특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그리고 한국인에게 적합한 통풍 질환 개선 식이 연구 등 한국인 맞춤 질병연구 성과들이 있음
- 이러한 연구성과는 'OPEN KoGES' 플랫폼이 시간과 장소, 분석 인프라에 제약이 없는 유연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고 맞춤형 연구 환경 제공을 통해 연구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함
- 플랫폼은 향후 민관 연계를 통해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산업·공공·의료 협업의 중심축이 되는 개방형 인프라로 발전할 계획
  - 국립보건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OPEN KoGES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OPEN KoGES'가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



빅 데이터

출처 : 질병관리청(2025.06.16.) 21만명 유전체 데이터로 여는 미래의학, 클라우드 활용 플랫폼 성과 발표



## 내 손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25.1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24.9월) 및 전산개발('24.10월) 등의 준비를 마치고 '25.6.19일(목)부터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 주요 서비스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체 금융자산 조회) 그간 이용자는 자신의 보유 자산을 조회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직접 연결해야 했으나, 이제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됨
- (어카운트 인포 연계)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계좌 조회만 가능했으나,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어카운트 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시스템을 연결, 조회·해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어카운트 인포 기능 이용 화면 일부>

숨은 돈 찾기 초기화면	숨은 계좌 목록	수취계좌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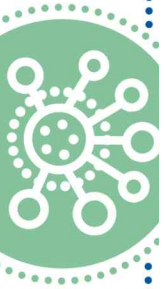
- (본인정보 관리 강화)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동의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두 차례의 본인확인 절차와 유사한 동의를 반복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하나의 절차로 일원화
-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 전송 요구의 주기를 1주 단위로 최대 4주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가입 유효기간 연장) 그간 이용자는 매년 동일한 동의 절차를 반복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6.19.) 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 [AI & Big Data Show 2025] AI 상용화의 핵심은 '데이터'

- 'AI & Big Data Show 2025'에서 데이터 활용 기반 기술이 핵심 화두로 부각되며 데이터 중심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 대응 전략이 주목됨
  - AI & Big Data Show 2025는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와 엑스포럼, AIT타임스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인공지능 비즈니스 전시회로 지난해에만 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함
-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데이터 처리·관리 전문 기업인 '모비젠'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생성 AI 플랫폼 '그라피오(Graphio)'를 공개
  - '그라피오'는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연계 구조를 활용해 기업의 업무 흐름과 의사결정 체계를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생성 AI 플랫폼
    - \* 어떤 분야의 개념과 그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지식 구조로,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까지 고려해 더 똑똑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움
  - 기업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자연어 기반 질의 응답, 업무 시나리오별 자동 문서 생성, 기업 내 데이터 간 의미적 연결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데이터 관리 및 확보 기술 전문 기업인 '씨로마인드'는 데이터 품질관리-라벨링 자동화 솔루션 '씨로마인드 AQM' 기술을 선보임
  - '씨로마인드 AQM'은 흩어진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통합해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 주고 라벨링 성능 및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관리해 주는 등 '고품질 데이터'를 선별 및 생성해 주는 서비스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 기업 '비아이매트릭스'는 기업 DB 분석 업무에 최적화된 전용 대형언어모델 'G-매트릭스'를 공개하였으며, 이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질의응답·시각화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기능을 보유
  - 자체 LLM을 기반으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한 뒤 정리된 데이터를 학습해 기업 맞춤형 DB 검색과 분석 기능을 제공, 자연어 검색을 통해 기업 내부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간 보고 과정을 제거하고 업무시간을 단축시키며 AI 기반 자동화 환경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 경영의 기반을 마련함
- 이처럼 최근 기업들은 AI 모델 개발 뿐만 아니라 데이터 확보, 정제, 검색 등의 인프라 영역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출처 : AIT타임스(2025.06.09.) [AI&빅데이터쇼] 모비젠, 생성 AI 기반데이터·시각화 인프라 플랫폼 공개  
 AIT타임스(2025.06.11.) [AI&빅데이터쇼] "데이터는 AI의 근본"...다시 부각된 데이터 관련 기업

AIT타임스(2025.06.13.) [AI&빅데이터쇼] 비아이매트릭스, 기업내부 DB 통합 검색 지원 'G-매트릭스'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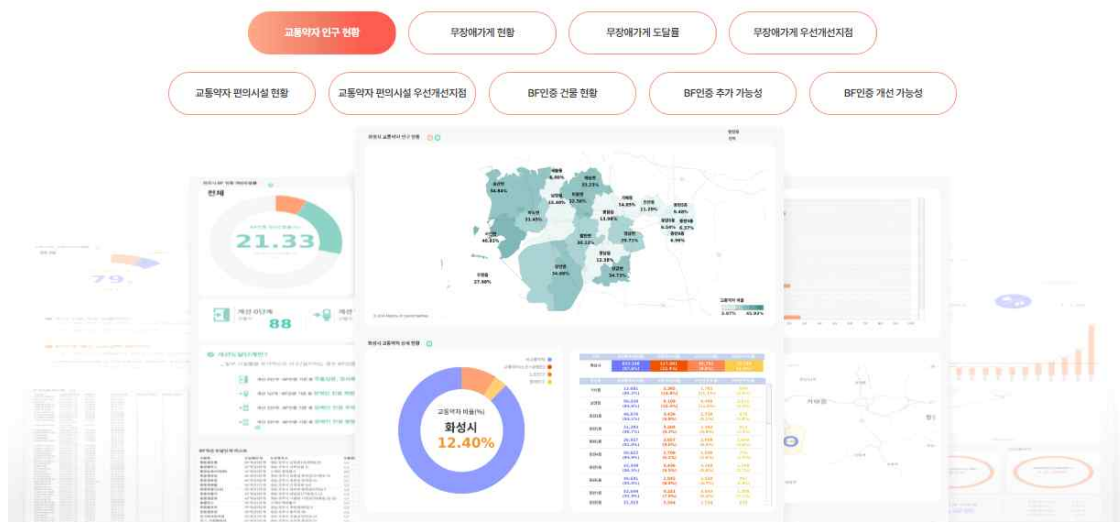


## 교통약자를 위한 음식점 선별,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월체어’

- 최근 지자체 기반의 AI·데이터 활용 복지 행정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음식점을 소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무장애(배리어프리) 도시 환경 구축 솔루션 ‘월체어’가 주목받고 있음
  - 월체어를 끄는 교통약자들은 가파른 계단과 문턱을 넘기 어렵고 방바닥에 앉아서 식사할 수 없는데, ‘월체어’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점만을 소개해 줌
  - ‘월체어’는 음식점에 관한 웹상에 있는 모든 사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통해 분석하며 음식점 외부의 사진으로 입구 장애물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사진을 통해 테이블 좌석 유무도 확인
  - ‘월체어’가 구축하는 데이터는 교통약자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공공데이터로도 활용되어 배리어프리 매장을 찾아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월체어’ SaaS(Software as a Services) 포스터>

### WillChair SaaS



- ‘월체어’는 정부 및 지자체에 사회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 구축 의뢰를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정보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위치 정보 제공을 동의한 월체어 앱 이용자들이 음식점과 카페를 찾기 위해 앱을 켜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교통약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음
  - 현재 6곳의 지자체 및 공공시설에서 ‘월체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올해부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시데이터레이크 사업에 선정되어 서울 전역 배리어프리 가게 데이터를 구축 중

출처 : 이데일리(2025.06.14.) ‘문턱 없는’ 식당, AI가 단번에 찾아준다…빅데이터 구축 비결은





## 개인정보위,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 배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25.6월)
  -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CCTV 운영 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 이를 담은 포스터를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할 계획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CCTV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필수 표지**

**CCTV 설치안내**

설치 목적 및 장소	방범 등 치안예방, 시설관리용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주차장, 승강기 등 단체내용 전용시설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관리사무소장 111-0000-0000-0000



음식점



주차장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 "경찰 임의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4년 342건이었으며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183건, '안내판 미설치'는 90건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

-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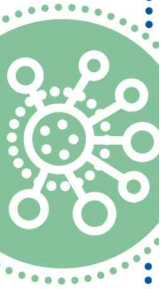
-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
-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 설치 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하고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됨
-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5.06.16.)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 디지털 보험사 보안 뚫렸다...美 레모네이드, 개인정보 유출 파문

- 미국 디지털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견적 플랫폼을 통해 운전면허 번호를 노출시켜 최대 19만 명의 운전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됨
  -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레모네이드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과실을 저질렀고 연방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법, 뉴욕 상법, 연방거래위원회의 데이터 보안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제기
  - 레모네이드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특정 데이터가 ‘표준 보호 수단’ 없이 전송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지난 3월 14일 해당 기술적 문제를 발견한 후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규제 기관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보고함
  - 그러나 소송자들은 레모네이드가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강화된 데이터 보안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청구
- 뉴욕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은 레모네이드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번호와 기타 개인정보를 공개해 작년 10월과 11월 자신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범죄자들에 의해 사기와 신원 도용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대출기관에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이 신청되었고 피델리티에 있는 자신의 퇴직 계좌에서 사기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함
  - 또한, 올 4월에는 레모네이드가 자신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했다는 내용의 편지도 받았다고 주장
- 레모네이드는 지난 2024년에도 생명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어 약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음
  - 당시 레모네이드는 가입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등에게 공유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제기됨



출처 : Insurance Journal(2025.06.12.) Class Action: Drivers Sour on Lemonade for Exposing License Numbers